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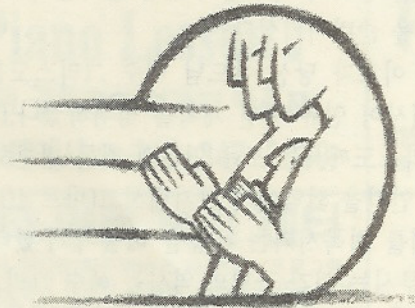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 가정 축일
제28권 5호 (가해) 2007. 12. 30

[묵상]



가정

가난하지만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으로
조출하지만 아버지의 굳건한 믿음으로
이 땅에 알차게 뿌리박고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의 터전 되어
사람을 구원하는 우리들의 요람.

◆ 한광구 요셉 · 시인 / 최창원 니콜라오 · 화가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962-8414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주일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들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1단계 종강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1단계 종강 오후 7:00 오후 8:00 1단계 종강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떼제기도모임(2째주 토요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 김중돈 스테파노, 이성범
	(생) 최석원 안드레아와 테훈 아오스딩, 방세훈 요한 이종욱 데이빗과 앤 가정, 김미래 세라피나 가정, 구영애 안재성 가브리엘과 사비나 가정, 김기원 율리아나
주 일 낮 미사	(연) 이현호 요한, 이영자 마리아, 이은완 야고보 정선결 모니카, 김중돈 스테파노, 서병수 내외 최복덕 마리아
	(생) 이종민 요셉, 토런스 남4반 가족들, 최귀환 펠릭스 송호민과 김나영 가정, 오세원 아타나시오 가정, 김중섭 마틴과 정심 크리스티나 가정, 임종택 베르나르도 임종택의 자녀들, 권바오로와 세실리아 가정 하버/카슨 구역원들, 박진숙 엘리사벳, 김은 안나 오명섭 미카엘과 창애 안나 가정, 유영군 우르바노와 명련 마리아 가정, 김씨니 클라라와 준호 프란치스코 가정 오영섭 스테파노와 지희 요안나와 MB가족 윤안토니오와 세라피나의 대자대녀들, 이문중 바오로 가정 최사비노와 양숙 안젤라 가정, 최기남 야고보 가정 구마리아네 수녀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집회서(Sirach)	3,2-6.12-14
화답송	◎주님의 집에 사는 자 얼마나 행복되리. <전례성가 62, 성 가정 축일> ○복되여라,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그 도를 닦는 자는 수고의 열매를 먹고 살리니, 너는 복되고 모든 일이 잘되리라.◎ ○너의 집 안방에는 네 아내가, 마치도 열매 푸진 포도나무인듯, 너의 상 둘레에는 네자식들이, 마치도 올리브의 햇순들 같도다.◎ ○옳거니,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렇듯이 복을 받으리로다. 주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내리시어, 한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하시도다.◎	
제 2독서	콜로새서(Colossians)	3,12-21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복 음	마태오(St. Matthew)	2,13-15.19-23
영성체송	우리 하느님께서 땅 위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어울리셨도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01	146
봉헌	142	142,141
성체	135	306,299
파견	146	101

8. 우리는 창조주 하느님을 믿습니다.(끝)

▶ 세상과 인간 구원의 역사

하느님께서서는 친히 약속하신 대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역사 안에 들어오셨다. 하느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어 그와 그 후손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느님께서서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당신의 율법을 주셨다.(탈출 19-20장 참조) 그리고 당신 아드님을 통하여 이루실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준비시키셨다.

마침내 때가 이르자 당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이 세상에 보내시어 인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다.(히브 1.1-2 참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당신 목숨을 바치시어 인간을 죄악에서 건져내시고(마르 10.45)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인간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신 당신 사랑의 역사이다.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서는 유일하시고 전능하시며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시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만물은 모두 선하며, 그 가운데서도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을 닮고 하느님의 숨결을 받은 가장 고귀한 존재인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헛된 욕망과 교만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느님의 길을 떠남으로써 비참한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에게 구원을 약속 하심으로써 희망을 갖게 해 주셨다.

우리가 하느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요한 15.16) 이 부름에 응답하는 길은 사랑뿐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느님을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을 사랑하며, 삶의 터전을 이루어 주는 자연을 사랑하자.

9. 우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로부터 십자가를 하나씩 받았다. 목적지까지 그 십자가를 결코 버려서는 안 되고, 그 까닭은 목적지에 도달할 때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그 중 한 사람은 자기의 십자가가 유난히 크고 무거워 보인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한 부분을 잘라 내고 길을 떠났다. 그런데 최종 목적지 바로 앞에서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가 나타났다. 사람들은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를 걸쳐 놓고 골짜기를 건너갔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가 잘라 낸 길이만큼 모자라 자기 십자가로는 결코 골짜기를 건널 수가 없었다. 낭패를 보게 된 그 사람은 그제야 십자가를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류의 죄'라는 십자가를 지셨고, 그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죽음의 골짜기에서 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는데...

◆(계속 - CBCK 제공)

믿음을 소중이 하는 가정

오래 전 본당에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를 가정방문을 할 때였다. 대화를 나누던 중 할머니가 식구가 두 사람이 더 있다고 하셨다. 그분들은 '예수님', '성모님'이라는 것이었다. 보이지 않는 식구지만 항상 같이 산다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집에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거나 무섭지도 않다고 하셨다. 그 때 같이 방문했던 한 자매가 "요셉 성인은 같이 못 살아 많이 섭섭하시겠네요"라고 해서 모두가 한바탕 크게 웃었던 적이 생각난다. 그 이후 신자들의 가정방문을 할 때면 보이지 않는 식구와 함께 산다고 하셨던 그 할머니가 기억난다.

오늘은 성가정 축일이다. 예수, 마리아, 요셉이 이루고 있는 가정을 '성가정'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성가정은 결코 평화롭고 윤택한 가정이 아니었다. 예수님의 가정만큼 고통과 시련이 많은 가정이 있을까. 따라서 성가정이란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 가족간의 일치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의미한다. 이 세상에 가정보다 더 소중한 공동체는 없다. 가정은 모든 사람의 인격을 길러내는 최초의 학교이며, 공동체 사회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소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참으로 많은 가정이 해체의 위협을 받고 있고 실제로 해체되고 있다. 하느님의 가장 귀한 선물인 생명이 거부되고 파괴되는 행위가 가정 안에서 일어난다. 가정의 가치를 지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할 때이다. 그러기 위해 어려

서부터 가정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가정 교육은 부모가 먼저 참인간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다. 참인간의 모습은 하느님을 닮은 모습이다. 하느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에서 중요한 것이 신앙교육이다. 또한 부모는 최고의 신앙 교사가 되어야 한다. 어려서부터 성당에 나가게 하는 습관은 하느님을 알게 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는 신앙교육이다.

성가정을 이루는 것은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가족 모두가 가정의 화목을 위해 힘쓰고 애쓰며 땀흘려 노력해야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다. 그러기 위해 먼저 가족 개개인이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가족 상호 간에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해야 한다. 또한 가족 중에 누가 잘못했다면 서로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될 것이다. 가족은 서로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일깨워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 가정은 화목하게 되며 이러한 가정이야말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축복받는 가정이 될 것이다. 성가정은 문제가 없는 완전한 가정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더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가정이다.

● 허영엽 마리아 신부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이번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강정현 시몬	신덕래 테레사	최숙 클라라	해설자	최지영 크리스티나	정미영 미카엘라	엄영숙 마리아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최영신 프란치스코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박진수 스테파노	이재용 안드레아
제2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서용숙 에스텔	유현자 안나	제2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박혜경 레나타	권순길 새실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1/3반	제물봉헌자			하버/카슨 2,4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가정성화와 레지오 재창단을 위한 묵주기도 봉헌
 - 봉헌하신 묵주기도는 계시판에 기록해 주십시오.
- ☞ 지난 주간 합계: 2,342단 ☞ 총 합계: 234,749단

오늘은 성 가정 축일 입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 가정축일'은 나자렛의 성가정을 기억하며 모든 신자들이 그 신심을 본받고 각자의 가정생활을 되돌아보도록 교회가 제정한 축일입니다.

☞ 송년 · 신년 미사 안내 ☞

- ◆ 2007 송년미사 : 12월31일(월) 밤 9시
-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1월1일(화), 오전11시

2008년
무자년
가해
1월

☞ 새해 첫 주간 안내 ☞

- ◆ 봉성체 : 3일(목) 오전 9시30분부터
- ◆ 성시간 : 3일(목) 저녁미사와 함께
진행 · 토런스 남구역
- ◆ 성모신심미사 : 5일(토) 오전 8시 30분

- ◆ 부산 교구장 황철수 주교님 착좌식 거행
 - 제4대 부산교구장 황철수 주교님의 착좌식이 28일 오전 10시 주교좌 남천성당에서 거행됐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 ◆ 한국 천주교 첫 순교자 김범우 일대기 연극 '불씨' 상영
 - 오늘 주일(30일) 오후 1시, 강당
 - 연출 : 조옥중 사도요한 신부님, 출연 : 부산 시립극단
 - 김범우(본명 토마스)는 조선 정조대 역관 집안 출신으로 현재 서울 명동성당이 들어선 자신의 집에서 신앙집회를 열다

체포돼 경남 밀양에 유배된 뒤 형벌의 여독으로 숨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천주교 순교자이자 영남지역에 처음 복음을 전파한 인물입니다.

◆ 요셉회 웃날이에 초대합니다.

- 오늘 주일(30일) 오후 2시30분, 강당
- 문의 : 이근태 세르지오 총무 ☎ 310-999-5226

◆ 볼리비아 어린이를 위한 의류를 모읍니다.

- 빈첸시오회가 볼리비아 코차밤바 마을에 사는 어린이들을 위해 의류를 모읍니다. 새옷이 아니더라도 깨끗이 손질된 옷이면 그 곳 어린이들에게는 아주 큰 사랑으로 전해집니다.
- * 문의: 이용식 베드로 빈첸시오 회장 ☎310-962-8414

◆ 새해(2008년/무자년/가해) 교회달력을 선물로 드립니다.

- 2008년 백삼위 본당 달력을 아직 안 가져간 신자분들은 사무실(또는 성물판매대)에 와서 한 가정당 1부씩 가져 가십시오. 사업체를 운영하는 가정은 2부 가져가세요.

* 주일학교 /한국학교 소식 *

◆ 주일학교 겨울방학중

- 개강 : 1월27일(주일)

◆ 주일 학생미사(영어미사) : 주일 오전 9시30분에 계속

◆ 한국학교 겨울방학중

- 개강 : 1월6일(주일)

◆ L.A. 대교구 Fingerprint 스케줄

- 가톨릭교회내 미성년자에게 봉사하는 성인들(주일학교/한국학교 교사, 각 분야 봉사자 등)을 대상으로한 Fingerprint 스케줄에 우리 본당이 배정받았습니다.
- 2008년 1월12일(토) : 오전 10시부터
- 관계자들은 사무실에 예약한 후 빠짐없이 지문을 찍어 주십시오. ☎850-6253 김순희 모니카 청소년분과위원장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교무금						성전헌금	성전헌금					
	권순봉	권오상	권진열	김대우	김선영	김용상		권순봉	권오상	권진열	김대우	김선영	김용상
김일선	김정웅	김종선	김철민	김현숙	문두현	김일선	김철민	김현숙	민상기	박기돈	박상진	박상진	박상진
민상기	박기돈	박상진	박수익	박인식	박재철	박수익	박인식	박재철	박종열	박희자	방세훈	방세훈	방세훈
박종열	박희자	방세훈	서영주	성낙호	신순철	성낙호	오기석	오세원	오수인	원건희	유영균	유영균	유영균
오기석	오명섭	오세원	오수인	오진희	오현희	윤희동	이경태	이기성	이병우	이석제	이숙화	이숙화	이숙화
원건희	유영균	윤혜미	윤희동	이경태	이기성	이재정	임현기	장영진	장전진	정명모	조소영	조소영	조소영
이병우	이석제	이숙화	이재정	임현기	장영진	장영진	차봉관	최길주	최상만	최원석	최희태	최희태	최희태
장전진	정명모	조경하	조소영	주대중	차봉관	차봉관	황인중	황인중					
최길주	최상만	최원석	최희태	홍기주	홍숙자	홍숙자							
황인중	황철수	송마이클	신영웨버										
합계 : \$7,300							합계 : \$4,610						
미사헌금: \$2,899 성탄대축일: \$2,050 구유예물: \$4,400							감사헌금: 민상기, 정미영, 이기성, 토런스남4반, 거룩한 독서반						

- ◆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2008년도 신자수첩이 나왔습니다.
- 각 구역 반장님들은 사무실에 와서 리스트에 오른 반원들
에게 나누어 줄 신자수첩(생활성서사 펴냄)을 가져 가세요.
- ◆ 백삼위 마라톤 동호회 결성 앞두고 회원 모집
- 마라톤은 기분을 상쾌하게 하며,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능
력을 높여주는 종합운동입니다. 30명 회원의 동호회를 결
성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앞으로 정식 트레이너
를 초빙하여 LA 마라톤 등 여러 대회에 참가할 계획을 세
우고 있습니다. 문의 : ☎ 740-1502 김철민 요한

- ◆ 가톨릭 신자용 상본 콜링(전화)카드 판매
- 가격 : \$20, 유효기간과 연결 수수료가 없는 경제적인
전화카드입니다. 분당 2.7센트의 저렴한 가격으로 한국과
통화 가능합니다.
* 사무실에 비치 중 ☎ 213-385-5564 김안나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2월30일 : 토런스 서 3반 (파로국밥 \$3)
 - 1월 6일 : 사회복지분과 (북어국 \$3)

남가주 소식

- ◆ 이냐시오 영신수련
- 2008년 1월4일(금) 오후 4시~8일(화) 오후 1시
 - 피정 주제 : 하느님과 만남
 - 지도 : 이영찬(사도요한) 신부와 예수회원들
 - 참가비 : \$350
 - 곳 : 꽃동네 피정관(37885 Highway 79 S. Temecula)
 - 문의 및 신청 : 성아그네스성당 사무실(323-731-4433)

- ◆ 작은 예수회 신년 '일일 점심과 차'
- 1월 5일(토) 오전 11시~오후 2시30분
 - 작은 예수회 장애시설 : 1137 Arapahoe St. L.A.
(올림픽과 후버)
 - 메뉴 : 갈비백반+음료수+공연, 1인당 \$10
☎ 213-387-3301

- ◆ '중년기 삶의 변화' 를 위한 피정
- 2008년 1월11일(금) 오후 3시30분~ 13일(일) 오후 1시
 - 대상 : 40~50대 여성(선착순 50명)
 - 지도 : 김유철 필립보 신부
 - 피정비 : \$130 ☎ 951-302-3400, 데메쿨라 꽃동네

이번 주 단체 모임

아듀, 2007년!, 해피 뉴이어!

다음 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 회의 오후 1시

소공동체 부장 차장 차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김양금 안나 518-3041	신원화 헬레나 533-0454 1/7(월) 오후 7시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3	한길선레 스킨라스티카 782-1025	한길선레 스킨라스티카 782-1025 1/11(금) 오후7시30분, 성당 유아실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티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김철수 사도요한 320-2425 1/12(토) 오후 7시
	2	이명순크리스티나 374-1572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3	김미성 미리암 798-6540	우영희 엘리사벳 513-1696 1/15(화)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씨니 클라라 612-8840	1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조준제 요셉 963-8171 1/18(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임진희 한나 720-7898	임진희 한나 720-7898 1/16(수) 오전 10시30분
	3	임형미 사비나 213-258-7797	임형미 사비나 325-6810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715-2609	박정희 마리아 715-2609 1/11(금) 오후 7시, 성당
	3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하버 카슨	1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2	김희복 아네스 326-2283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12(토) 오후7시
박혜경 레나타 808-5005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1	유성혜 도미니카 562-209-4454	최재은 베드로 997-9006 1/11(금) 오후 7시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김숙희 유소사 544-4807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진애경 올리아나 541-5370 1/18(금) 오후 7시30분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사랑과 질서로 엮어가는 가정의 행복

예수님의 탄생은 로마황제의 호구조사령이 내려진 가운데 유다 베들레헴의 어느 마구간에서 극적으로 이루어졌다. 방도 없는 마구간에서 한낱 포대기에 싸여 말구유에 뉘어진 아기 예수, 그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 이들은 하느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 느닷없이 들이닥친 한 무리의 목동들이 남기고 간 흔적을 마리아는 자신의 마음 속 깊이 새겨 간직하고(루카 2,1-20), 요셉은 이 엄청난 일을 앉아서 당하다시피 했으니 그 혼란스러움이 가히 짐작된다. 루카복음은 그저 요셉의 이름만 등장시킬 뿐, 마태오복음이 그나마 이 엄청난 일의 이유를 설명한다. 그것도 모든 것이 잠을 자는 꿈속에서 설명되니 요셉의 상태는 비몽사몽(非夢似夢) 간이었을 것이다. 요셉은 꿈속에서 약혼녀 마리아의 잉태사실을 통보받았고, 그래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마태 1,20,24). 오늘 복음에서와 같이 동방에서 온 박사 셋이 다녀가자 또 꿈을 통해 헤로데의 살인극을 피해 이집트로 피난 갈 것을 지시받고(13절), 헤로데 대왕이 죽은 다음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20절)과, 후계자를 두려워하는 요셉을 배려하여 갈릴래아 나자렛으로 갈 것(22절)을 지시받는다.

오늘 복음에는 헤로데 대왕이 미래 자신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아기들을 학살하는 대목(2,16-18)은 의도적으로 생략되어 있지만, 전체적 구상은 구약의 모세가 파라오의 살인극으로부터 구사일생(九死一生)하는 대목과 매우 흡사하다.(탈출 2-4장) 구약성서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성조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장소로 자주 이집트를 택했다.(창세 12,10-20; 46,1-7) 뿐만 아니라 마태오복음사가는 이스라엘이 모세의 영도 하에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개선하는 출애굽의 사건을 오늘 복음의 배경에 둬으로써 하느님의 인류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여기에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나름대로 자신에게 할당된 몫을 수행하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느님의 인류구원역사는 나자렛의 한 가정에서 그 구체적인 시작을 보게 된 것이다.

아기 예수가 탄생함으로써 요셉과 마리아가 꾸려나가는 하나의 가정, 나자렛의 이 가정은 겉으로 보기에 다른 어느 가정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면 이 가정은 성가정(聖家庭)이다. 그렇다고 마리아와 요셉이 스스로 자신의 가정을 성가정으로 선포한 적은 없다. 예수, 마리아, 요셉의 가정이 성가정인 이유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아기의 잉태와 탄생을 놀라움과 기쁨, 순명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이루는 가정 안에 스며있는 하느님의 거룩한 뜻을 헤아리며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가정이 없으면 사회도 국가도 없고 인류도 없으며, 문화도 문명도 종교도 없다. 사람의 모든 것은 가정을 뿌리로 성립된다. 가정은 분명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이루는 인간적 제도이지만, 동시에 거룩한 천륜(天倫)을 따라 이루어진 신적(神的) 제도이기도 하다. 그래서 모든 가정은 인간적 사랑과 신적 질서로 표현된다. 질서 없는 사랑은 쾌락이 될 뿐이며, 사랑이 없는 질서는 잔인할 뿐이다. 사랑과 질서는 마치 빨래줄을 팽팽하게 유지시키는 양쪽 기둥과도 같은 것이다. 모든 가정이 추구하는 행복을 이 빨래줄에 비긴다면 줄이 팽팽해야 빨래를 걸어 말릴 수 있듯이 행복의 구체적인 요소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다.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해지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다. 이 점에 대하여는 오늘 미사의 독서가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집회 3,3-17; 콜로 3,12-21)

오늘날 가정의 본질과 의미가 심하게 무너지고 있다. 그렇다고 책임소지를 따져 누구의 탓으로 돌리거나 변명을 할 필요는 없다. 우리 가정이 먼저 가정의 본질과 의미를 새롭게 해야 하며 이를 구현해야 하며,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는 질서와 사랑을 다시금 점검해보아야 한다. 가정의 행복과 궁극적인 목적이 물질의 풍요에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먼저 가정이 신적(神的) 질서에 의해 거룩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며, 인간적 사랑 때문에 아픔과 갈등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오늘 우리 가정이 비록 물질적으로 빈곤하고 정신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며, 각자가 서로를 위해 오직 존재한다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을 보고 배워야 할 것이다.

◆ 박상대 마르코 신부